

# 우리들 이야기



“첫번째 시현”, 알라나 엘, 7세, 브라질 상파울루



마르코 지, 9세, 페루 리마



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서  
침례받게 되어서 무척 기뻐요. 물몬경이  
참됨을 알기에 저는 물몬경을 매일 읽는  
걸 좋아해요. 물몬경을 읽으면, 저는  
동생들에게 더 책임감 있는 형과 오빠가  
되어요.

안드레이 엘, 10세, 필리핀 일로일로



하라다 케이, 8세, 일본 요코하마